

청소년부문-우수상

너의 운명을 위해

대전관저중학교 이은용

작품소개

사랑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주인공은 이별을 통보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너도 똑같아”라는 말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었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이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와 헤어지고 난지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았다. 체감 상으로는 1년 정도 지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 달까. 우린 이미 하염없이 멀어져, 돌이킬 수 없는 사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전까지 만나던 것이 놀라운 사이였으니.

때는 내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였다. 그와는 2년 정도 만났었고, 난 그 정도로 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다. 그의 진실을, 텅 빈 마음을 알게 되었을때.

그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나도, 네가 좋다고. 하지만 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순간 느꼈던 그 감정은, 너무나도 우리사이에는 이질적 이어서. 더이상 우리의 감정은 이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나는 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미 알고있었다는 듯이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너도 똑같아.” 마지막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보아도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 였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같을 수 있지?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같은 수 있냐는 말이다. 뭐, 지금와서 이야기 해 보아도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저 그 인공지능과 만나 설렌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을 후회하는 일 이 남았을 뿐이지.

지금의 우리는 또다시 산업 혁명을 겪고 있는 시기 였다. 인공지능의 바람이 불었고, 직접 사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의 그 점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스며 드는데 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결과. 우리는 인공지능과 뒤죽박죽 섞여있는 상태가 되었다. 누가 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모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 들이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하대해 졌고, 감정이 없다 생각 해져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나처럼 인공지능 과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누가 사랑을 흉내내는 것에게 진심이 될 수 있을까. 그러는 사람은 그저 짝사랑으로만 끝날 비루한 운명을 가진 이 일것이다. 인공지능 에게 속아서 말이지.

나도 그런 멍청한 이가 될 뻔 하였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사람을 찾아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에 친

구에게 소개팅남쯤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반드시 사람으로 찾아달라고.

-

새로산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어제는 기름기 가득한 스테이크를 먹어 이미 배를 채워났으니, 오늘은 그와 만나 조금만 먹을 생각 이였다. 메뉴는 파스타로. 좋아, 좋아. 모든것이 완벽할 하루 였다.

그는 친구가 건너건너 알게되어 소개해준 사람 남자였다. 진정한 사람 말이지. 키도 훗칠 하고, 미모도 꽤 한 몫 했다. 물론 전남친 보다는 아니지만, 전 남친이야 말로 가짜얼굴이 아닌가. 가면으로 뒤덮힌. 행복한 자리에서 그런 생각은 그만하자, 고 다짐을 한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자니 정말 멋진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색함 없이 잘 해냈다. 직업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등의 뻘한 이야기를 조금 늘어 놓기는 했지만,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미리 알아본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연락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아, 아니.. 그게 아니지, 후식으로 카페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았던가? 하늘이 붉어 졌을 때 즈음 이미 집에 들어와 맥주와 안주를 마시며 메세지 로 다음을 기약 했던가?

기억이 뒤죽박죽 이였다. 아니, 이래서는 안되는데. 왜 이러지 자꾸. 눈앞이 핑핑 돌아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정신차리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지? 갑자기 어릴적에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비록 엄마의 얼굴이나 형상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문장 만은 분명히 기억해냈다. '기억이 뒤죽박죽 섞이고 앞의 화면이 흐려질 때는 관자 부근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서 정신을 차려.' 그래. 그거였다. 나는 재빨리 관자놀이를 세게 눌렀다. 그랬더니 시야가 서서히 들어왔다. 그래. 이제 좀 낫네. 정신차리고 있자니 뒤에서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기 집이 아니 었나? 아니. 맞았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와 그가 서있었다. 그 외에도 처음보는 이들이 몇몇 더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혈흔 같은 피가 잔뜩 쏟아져 있었다. 저거, 누구피야? 금방 알게될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 작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나는 바닥에 비

스듬히 앉아 있었으니까.

“나에게, 왜 그런거야?”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고, 그마저도 덜덜 떨렸다. 푸하하 -, 그들의 웃음소리는 잔인하게도 선명히 들려왔다. “너, 인공지능 이라며?” 누군가가 말했다. 무슨소리야, 나는 사람인데. “다 들었어. 너 전 남친 이랑 하던 이야기.”...뭐? “니 전남친, 인공지능 이였다면서? 끼리끼리 논다 했더니,.. 개가 너도 똑같다고 이야기 했잖아. 기억안나?” 기억나.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 “그럼 너도 인공지능 아니야? 어디서 깡통 주제에 사람인척하고 내 친구가 되지를 않나.. 남자사람 소개시켜 달라 하질 않나.. 그냥 구석에 짱박혀 있을 것이지.”

..무슨 소리야, 너희 완전히 오해한거야. 그 이야기, 내가 개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개가 너도 똑같이 감정없는 나쁜 애 라며 한 이야기일텐데.. 이야기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왜 나오지 않아? 아니면, 나오 는데 그저 너희가 무시 하는 거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뭐야, 싱겁게. 하여튼 다시는 보지 말자. 뭐, 할 이야기 있으면 문자 남기던가. 재미있게 봐줄 테니.” 친구와 그, 그리고 남은 이들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 나간 친구의 목소리가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들려왔다. “사람 흉내내는 애랑 만났다니.. 하, 진짜 후회된다 정말.” 아니, 아니라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너희,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____

눈꺼풀이 서서히 움직였고, 눈이 띄었다. 다시 눈뜨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영원히 잠드는 줄로만 알았는데..

역시 그건 모두 꿈 이었던 거야. 그럴리가 없을거야. 생각이 무색하게 진득하게 굳은 피가 만져졌다. 낮의 그 공기가 열린 문을 통해 불을 간지럽혔다. 아. 적어도 문은 닫고가지.. 사라진 물건들이 없나 주변을 둘러다.배가 고팠다. 피투성이 인 채로 간신히 먹을 것을 꺼내 먹고 생각해보니, 그것. 모두 꿈이 아니었나 보다. 살짝 만진 머리에서 엄청난 아픔이 느껴졌다. 액정이 깨진 폰을 컸다. 누가 충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인게, 영 미심쩍고 이상했다. 9월 1일. 정확히 그날로 부터 삼일정도 지났다. 나는 그 시간동안 잠들어 있던 것일까.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밥먹은 것을 정리하고, 피냄새가 나지 않게 씻고, 집안을

청소했다. 며칠간 열려 있던 문을, 다시 열리는 일이 없길 바라 듯이 세계 닫았다. 옷을 정리하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다시 폰을 집어들었다. 다시. 다시. 모든것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개가,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멍청한 인공지능이 왜 내게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든 것이 오해라고. 그러니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하라고. 인공지능이라고 비하한 것을 사과 하라고. 그리고 깔끔히 정리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리고는 그를 차단했다.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발전 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의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간 건지, 자신이 친구를 속인 건지. 어느쪽이 되었든간에 나에게서는 완전히 찍혔 스니까 말이다.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상담도 받아야 했고, 또 핸드폰을 충전한, 내 집에 들어온 이가 누구인지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고. 아직 온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의 오해도 풀어지도록 노력해야 했으니. 그래도 무언가 조금씩 정리 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쏘쏘 정도일까. 그래. 노력한 내게는 보상이 필요하지. 발걸음을 가볍게 돌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름기가 엄청난 스테이크를 시켰다. 한 덩이를 나 혼자씩 비우고 나니, 배가 불러왔다. 만족한 상태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거닐었다.

그리고는 탄생각을 했고, 행인과 부딪혀 버렸다. 아, 행인 이라고 하기는 그런가. 그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공지능. 전남친 이였기 때문이다. 사과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인공지능 에게 고개숙이는건, 말도 안되니까. 그가 나를 계속 쳐다보니, 나도 그를 쬐려 봤다. 뭘 봐? 하는 듯이. 그 조용한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딱 한마디. “괜찮아 졌나보네” 뭐? 괜찮아 졌다고? 애초에 안 괜찮았던 적이.. 허. 설마,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안괜찮을거라 생각했나? 아니면... 아. 있었다. 안 괜찮았던 적. 머리속에서 다시끔 생생하게 그 장면이 퍼져나갔다. 네가 던진 한마디에, 죽을 뻔하던 그 장면들이.

그런데.. 그걸 알고서는 말하는 건가? 대체, 무슨. 머리속에 한가지 가정이 떠올랐다. 만약 애가, 미련을 버리지못하고. 아니면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내 집에 찾아왔다면? 쓰러져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는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았다면? 모든것이 들어맞는다. 그래. 너였어. 아니, 너 였어야 만해. 너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예전보다 팔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 네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겠지.

카페로 그를 끌고가 앉혀 놓고는 간단히 음료를 주문했다. 그 카페에서 제일 싼 것으로. 어찌다가 확 엎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멍해보이는 그에게 물었다. “헤어지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런 꼴을 당한거. 알고있어?”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멍청아, 사람이 말하면 좀 성의 있게 대답하라고. 말이 튀어나오려는걸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상황에서는, 그 이야기가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 이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이야기 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왜한거야? 정확히 무슨뜻이야?”

그는 나에게로 시선을 가볍게 던지고는 입을 열었다. 그가 평소에 쓰던 말투와는 다른 말투 였다.

“너. 는. 나. 랑. 똑. 같. 으. 면. 서. 다. 른. 척. 하. 잤. 아.” 그게 무슨 소리 냐고. 말이 곱게 만나갔다. 어딜 어디에 비교하는 거야? 사람이랑 인공지능 이랑 같아? 둘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알고선 이야기 하냐고.

푸하하, 웃음소리가 정말 황당했다. 재가 지금 이게 웃을 타이밍이야? 뇌센서에 오류라도 난 거야?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진지한 눈동자는. 내 예측이 틀렸다고 이야기 해주고 있었다. “너도, 인공지능 이라고.” 아니, 아니 잠시만. 너, 뇌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수리 다시 받아보는게 어때? 연결 코드쪽 입자가 과열이 되었나 보다. 응? 너, 지금 정신으로는 제대로 이야기 나눌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그 시선을 간신히 회피하고 이야기 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간에, 더이상 이야기 하기 싫은지. 할 이야기는 모두 끝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의 특기인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 “짜사랑으로만 끝나는 비루한 운명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운명이야.” 라고.